

부두연극단 20주년 앵콜 레파토리 공연 /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NO.4 / 문예진흥기금 선정작/ 사랑티켓 참가작

에쿠우스

제작 부두연극단

■ 작 피터 셰퍼

■ 재구성 및 연출 이성규

(EQUUS)

1985년, 1991년, 1998년 공연에 이은
화제 폭발의 다이나믹한 연극

"나는 네가 되고 싶다.
네 몸안에 들어가고 싶다.
영원히 영원토록....."



■ 공연일시 - 2006년 11월 1일~ 19일 평일 오후 8시, 토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조연출 변자영 ■ 음악 및 연주 이세호 ■ 출연 박혜인 김태훈 정주빈 최현경 류혜린 외

■ 문의처 : 611-6616 / 018-740-3574 ■ 사랑티켓(부산은행 각 지점 구입가능)을 구입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가능합니다.

■ 예 매 : 티켓 BOX <http://www.ticket-box.co> 티켓 365(1588-2528) <http://www.ticket365.co.kr> 다음카페 cafe.daum.net/actorsplay 전화예매 가능



에쿠우스



1. 70년대이후 한국최고의 공연기록을
낳은 바로 그 연극,

새로운 스타탄생의 신드롬을 낳은
화제의 바로 그 연극
(강태기, 최민식, 조재현 등)



2.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첨예한 문제의식,
격렬한 다이내미즘, 거친 호흡과 땀,
절규, 벌거벗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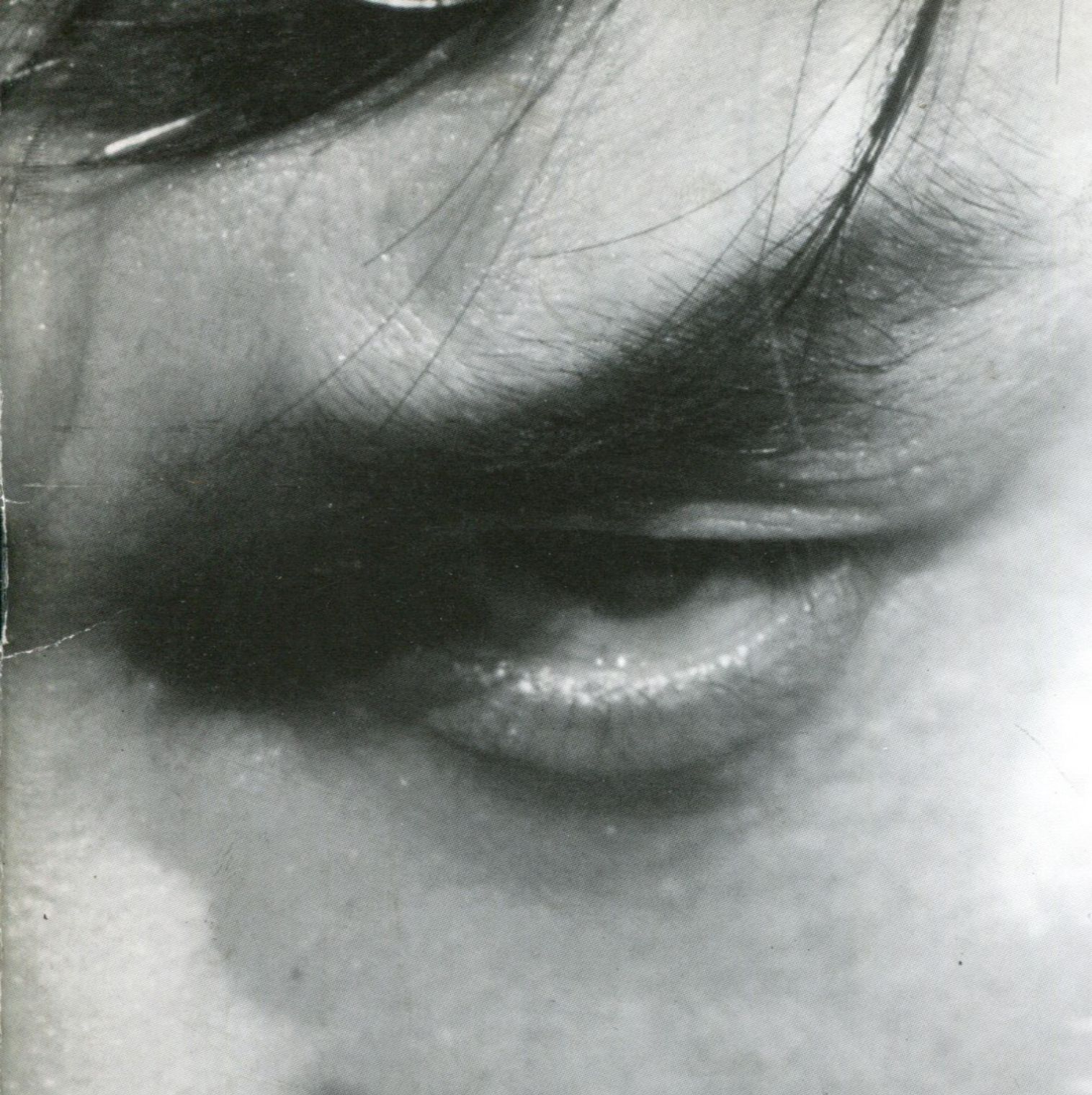


3.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는 자연의 생명력과
본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정상과 이상에 대한 뒤집기의 미학.



4. 다양한 양식의 종합, 매력적인 극형식,
최면상태로 끌고가는 환상적인 조명과 음악.

제작 부두연극단



殺人者들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3
해외 최신연극 시리즈 No.1

(원제: 로베르토 주코)

- 공연일시 - 2006년 10월 1일 ~ 2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6시. 추석연휴 및 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제 작 - 부두연극단
- 작 -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
- 재구성 및 연출 - 이성규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4
부두연극단 20주년 앵콜 레파토리 공연

에쿠우스

(EQUUS)

- 
- 공연일시 - 2006년 11월 1일 ~ 19일
평일 오후 8시. 토.일 3시, 6시. 월요일 공연없음.
 - 공연장소 - 액터스 소극장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 하이마트 뒤)
 - 제 작 - 부두연극단
 - 작 - 피터 세퍼
 - 재구성 및 연출 - 이성규

에쿠우스

(EQUUS)

액터스 소극장 재개관 1주년 기념공연 시리즈 No.4
부두연극단 20주년 앵콜 레파토리 공연

공연개요 <공연단체 부두연극단>

STAFF

원 작 피터 세퍼
재구성 및 연출 이 성 규
조 연 출 변 자 영
기 획 박 혜 인, 강 경 희
무 대 감 독 최 성 우
작곡 및 연주 이 세 호
조명디자인 김 철 현
무 대 장 치 최 성 우

CAST

박 혜 인 헤스터 역
김 태 훈 다이사트 역
정 주 빈 알런 역
최 현 경 도라 역
류 혜 린 질 역
임 원 석 프랑크 역
기타말들



작품해설

1974년 10월 브로드웨이의 포리머드 극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눈이 멀어버린 말들의 고통스런 신음 소리에 “타가닥 타가닥”하는 말발굽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려 5분 동안이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1949년에 상연되었던 아더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후 25년만의 경이의 순간이었다. 피터 쉐퍼가 영국의 극작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극작가의 반열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이후 이 연극은 구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수없이 공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극단 실험극장이 1975년 9월 5일 전용소극장에서 <에쿠우스>를 초연한 이래 1080회(1991년 5월 기점) 공연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연극역사상 최다 공연기록을 세우며 감동과 충격의 파문을 일으켰다. 부산에서는 부두극장(현 부두연극단)이 중앙동 부두소극장에서 2달간 공연하여 6,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80년대 최고의 화제작으로 불리어졌었다. 이후 부산에서도 이 작품은 1991년 부두극장이 재 공연을 하였었고 부두극장의 옛 멤버였던 박찬영, 김하균 등이 극단<우리>의 이름으로 공연하였으며 1998년 연당 소극장에서 이성규 연출로 재 공연되었다.

<에쿠우스>가 이처럼 세계적인 큰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터 쉐퍼의 치밀한 극적 구성 능력과 작품이 보여주는 “현대인의 실존”에 대한 치열한 리얼리티, 작품의 내면에 흐르는 강력한 에너지에 있을 것이다.

<에쿠우스>는 실화를 토대로 하여 쉐퍼가 2년 6개월이나 걸쳐 창작한 작품이다. 한때 영국의 법정에 커다란 파문과 충격을 던져준 26마리의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마구간 소년의 엽기적인 범죄사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쉐퍼는 그 범죄사실만을 빌어 왔을 뿐 작가자신의 구체적인 이미지와 상상력으로 새로운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였다.

작품줄거리

무대는 마치 권투링이나 심판대를 연상시키는 각형의 무대로써 배우들은 공연 시간 내내, 무대에 서 있거나 앉아있다. 이러한 무대구성은 종교와 신념 그리고 사회체제와 윤리의 투망(감옥)에 갇혀버린 현대인의 실존과 실상을 잔인하게 발가벗겨 해부해 보이는 데 적합한 무대이다. 이러한 처리는 이 연극의 배경이 정신병원에서 마구간, 방, 영화관, 들판으로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된다.

작품은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가 정신병자 알런을 치료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형식은 극중극의 구조로 일종의 싸이코 드라마적 형식을 띤다. 이 연극의 매력은 그 배경에 아폴론적 세계와 디오니소스적 세계, 유일신과 다신론적 세계의 대립으로부터, 정상과 이상, 문명과 자연 등 숨 막힐 듯한 절실한 현대적인 심각한 테마가 교향곡적인 박력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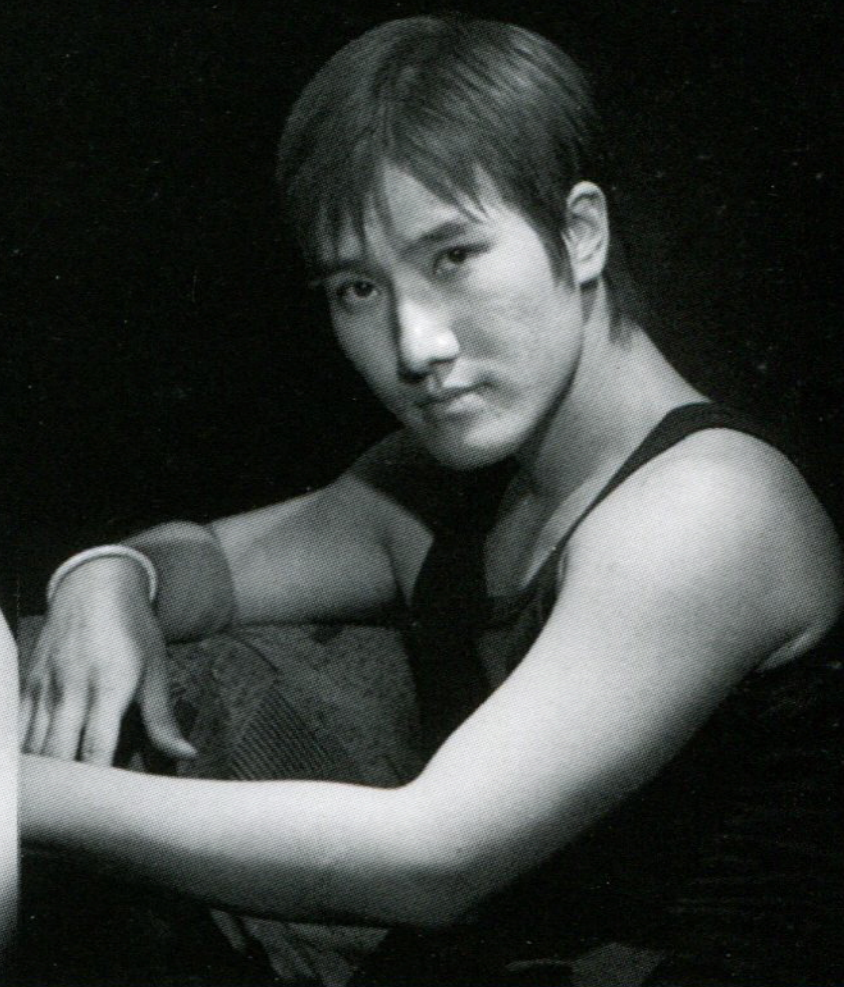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심오한 질문의 하나는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세계가 오히려 인간의 원초적 자연성과 활력을 잃어버린 죽은 세계, 즉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있는 신성과 야성을 끄집어내는 점에 있을 것이다.



■ 박혜인 헤스터역



■ 김태훈 다이사트역



■ 정주빈 알런역



■ 임원석 프랑크역



■ 류혜진 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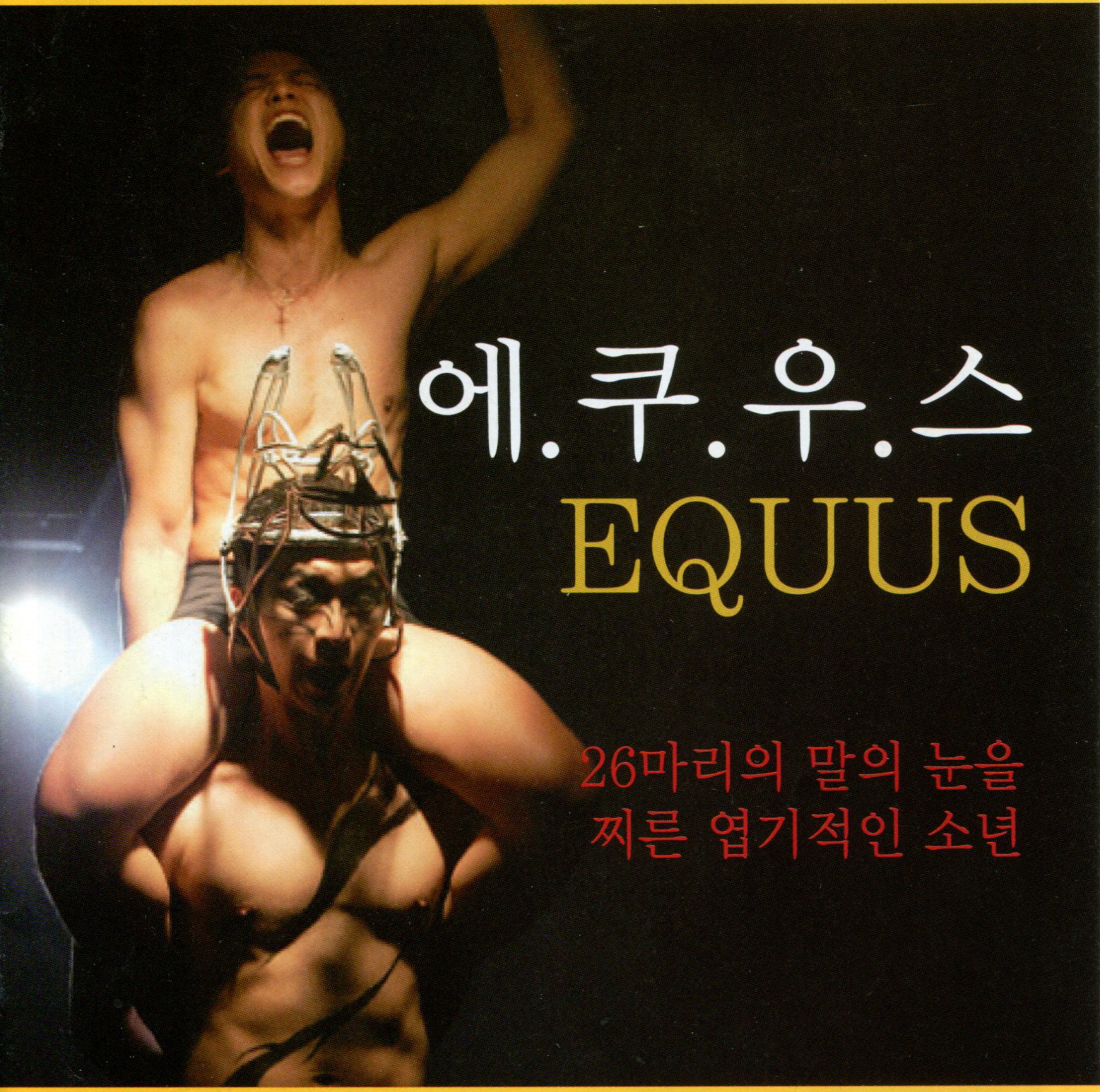


■ 최현경 도라역

가마골소극장 25주년(1986-2011)

2011/8

가마골연극



에.쿠.우.스 EQUUS

26마리의 말의 눈을
찌른 엽기적인 소년

가마골소극장 25주년 기념공연 3

연출 이성규

출연 김병철 장기훈 김미영 최원준 이유진 김미미 김이현 손영민 김강윤 이형원

www.kamagol.co.kr

알 런 - 우와! 멋있다.
 몸이 굳어진다. 바람속에서 몸이 뻗뻗해진다.
 갈기털이 바람속에 나부낀다.
 다리위로, 옆구리로, 알몸! 알몸! 나는 알몸이다!
 너는 느끼는개! 나를! 나는너다. 너는나다.
 나는 네 몸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네가 되고싶다.
 영원히, 영원토록, 에쿠우스 너를 사랑한다
 재! 나를 데려가다오.
 하나로! 하나로! 하나로! 한사람으로! 한몸으로!
 다이사트- 소년은 오직 너제트라는 말만을 포옹한답니다.
 한손은 말의 가슴에 한손은 말의 목에 얹고
 마치 얼어붙은 탱고의 댄서처럼 차갑고 달콤한 숨을
 빨아들이며 서 있습니다. 내게 에쿠우스의 소리가 들립니다.
 캄캄한 신령의 동굴에서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나지? 왜냐? 정말 나에 대해서 다 설명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전하게, 틀림없이, 꼭 들어맞게 날 설명할수 있을까?
 불쌍한 닥터 다이사트

- <에쿠우스>中



가마골소극장 25주년 기념공연 - 극단 부두연극단

EQUUS

에.쿠.우.스 2011

2011.8.5(금)-21(일) 가마골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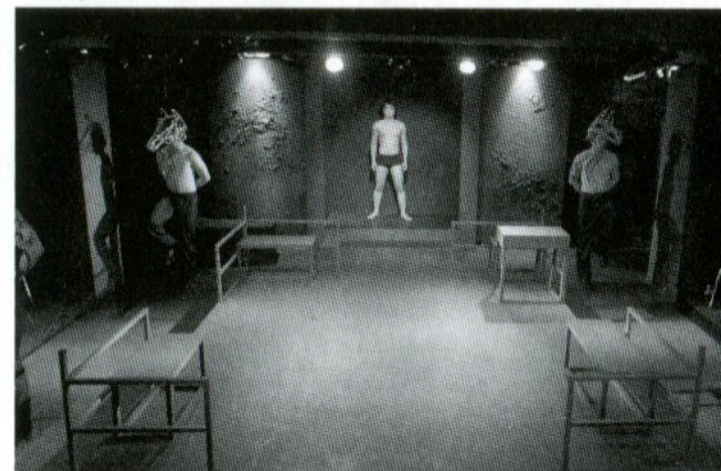
평일 8:00 토 3:00 7:00 일요일/공휴일 2:00, 6:00 (월심)
 일반 25,000 대학생 20,000 중고생 15,000
 전화예약 1588-9155 / 051-868-5955
 인터넷예약 www.kamagol.co.kr

만든 사람들

연출 | 이성규
 무대감독 | 김태호 안무 | 양효윤 음악 | 강원중
 무대 | 최성우 기획 | 권귀영 의상/소품 | 신은진, 박미경
 조명OP | 양은미 음향OP | 홍연택

출연

다이사트 김병철 알런 장기훈 도라 김미영
 프랭크 최원준 헤스터 이유진 질 김미미
 트루퍼 김이현 트로잔 손영민 위너스 김강윤 너제트 이형원



목차

축하의 글	4
연출의 글	5
작가소개	6
작가의 말	7
기획의도	8
작품에 대하여 _작품안내	9
작품특징	10
줄거리	11
장면개요	12
공연평	13
연출소개 / 출연진 소개	16
스텝소개 / 가마골 공연기획팀 소개	18

이성규의 사람들



이윤택

(가마골소극장 예술감독)

이윤택이란 사람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신문사 기사를 그만두고 연극을 하겠다고 하니…… 당시 부산 연극인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 (말 없음표)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 밀양연극촌의 총 제작감독으로 같이 살고 있는 마산의 천부적인 무대제작자 김경수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윤택이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아마추어거나 사기꾼’ 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연극 제도권에 몸담고 있던 연극인들 대부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 이성규의 제안을 받았다. 소극장을 운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 내가 참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믿고 같이 작업하겠다는 것인가? 그때 이성규형의 답변은 한결 같았다. 소극장 운영은 어렵고, 나는 부두극장이란 소극장 운영 경험이 있다. 지금 마침 문을 닫을 형편이다. 그리고 1973년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얼굴에 분칠을 하고 갈팡질팡 뛰어 다니던 당신의 모습을 객석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나는 두말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같이 가마골 소극장을 만들기로 했다. 같이 만들기로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성규 형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 가마골 소극장 특유의 무대와 객석 구조는 동아대 극회 출신의 이성규형 사람 권오진이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했다. 그는 지금 미국 어느 대학 극장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대 극회 출신으로 막 제대한 박지일을 데려왔고, 항공 화물 배달부로 일하고 있던 김광보를 데려왔다. 이성규형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았다.

이성규형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에 나를 믿지는 않은 듯 하다. 그때마다 이성규형의 입장은 ‘민자, 서로를, 조건 없이 믿어 보자’ 였다. 그래서 나의 첫 작품

〈푸가〉와 두 번째 작품 〈히바쿠사〉는 이성규형이 기획자였다. 직접 표를 팔고, 배우와 스태프들을 다독거리면서 무사히 막이 오를 수 있도록 이끌었다. 가마골 창단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윤택은 거의 미친 존재감으로 불붙는 화약이었고, 이성규는 뒤에서 치밀하고 냉정하게 가마골 소극장을 운영해 나간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연 대본을 써 주는 것 뿐이었다. 동래야류를 텍스트로 한 「잡귀잡신은 물알로」를 써 드렸는데, 이성규형은 연출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고쳐야 했다. 그만큼 이윤택과 이성규는 서로 다른 성격과 입장이었던 것 같다. 먼 훗날, 연출가 김광보는 그렇게 술화한 적이 있다.

‘내 연출 방식이 디데일하고 치밀한 해석을 요구하는 편인데, 이는 부산 연극인 이성규 선생의 영향인 듯 하다.’ 분석적이고, 특히 심리적 표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들이면서 배우들 진을 빼는 이성규형의 연출 방식은 유명하다. 그래서 한 두 번 이성규형과 작업해 본 배우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스스로 참 복도 없고 인기도 없는 연출가라고 스스로 탄식을 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성규형을 부산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로 내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성규형의 집요하리 만큼 꼼꼼한 분석력과 깐깐한 고집이야말로 연극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는 지금까지 같이 연극할 사람이 없다고 투덜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성규의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이성규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영화배우로 잘 나가는 배우 김윤석, 박지일도 있고, 연출가 김광보도 있다. 그 중에 가장 출세한 이성규 사람이 이윤택일 것이다.

에쿠우스와 나 그리고 가마골소극장



이성규(부두연극단 대표)

살아가면서 간혹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진보와 변화를 거듭해가고 있는 현대문명을 생각하면 아득해 질 때가 있다. 그럴때마다 과연 우리 현대세계가 과거의 사회보다 더 행복한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을 해본다. 그럴때 떠오르는 작품이 〈에쿠우스〉이다. 지하철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도시인들의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면서, 돈과 권력, 환상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현대인들의 가련한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때도 난 〈에쿠우스〉를 생각한다.

1986년 극단의 후배가 「에쿠우스」대본을 가지고 와 공연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썩 내키지 않았다. 몇년전 서울에서 히트한 작품을 양식도 없이 어떻게... 그러나 대본을 읽어본 나는 즉시 작품에 매료되고 말았다. 첩첩한 심볼리즘, 다양한 양식의 종합, 잘 짜여진 극적 구성...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자 하는 소극장 연극의 주제와 양식, 방향성에 딱 맞는 작품이었다.

1986년 〈에쿠우스〉를 부두소극장에서 2달간 공연했고, 약 6000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다. 그러나 그 공연 이후 극장은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운명을 맞았다. 1987년 가마골소극장에서 일할 때도 〈에쿠우스〉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된적이 있다. 그후 〈에쿠우스〉는 1993년 중앙동 가마골에서 김광보에 의해 공연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공연을 보지 못했다. 김광보는 부두극장 창립단원으로 〈에쿠우스〉 초연때 조명을 담당했었다. 그 후 서울로 간 김광보가 만든 극단 〈청우〉의 〈에쿠우스〉는 부두연극단의 연당소극장 개관기념공연으로 초청되었는데, 나의 〈에쿠우스〉와는 전혀 다른 공연이었다. 그 후 연당소극장에서 〈에쿠우스〉를 나의 연출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때 다이사트 역을 맡은 사람이 현재 총무로의 스타가

된 김윤석이다. 2009년 액터스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에쿠우스〉는 다시 거제리 〈가마골소극장〉에서 앵콜공연할 예정으로 있다가 배우의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다. 2006년 에쿠우스를 공연할 때부터 나는 〈알런〉역으로 장기훈을 생각해두었는데 그때는 그가 바빠서 하지못했고 2009년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알런’역은 장기훈이 맡고 나머지역은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다.

〈에쿠우스〉는 1986년 이래로 5번째 공연하게 되었지만 작품을 할 때마다 늘 새로운 사람들과의 작업이라 나에겐 언제나 긴장과 흥미를 더해주는 작품이다. 가마골 소극장에서 2번이나 공연 하려다 못하게 된 작품을 25주년 기념공연으로 하게되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왜 〈에쿠우스〉인가? 왜 〈에쿠우스〉에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매료되는 것일까? 어떤 신드롬 때문인가? 아니면 ‘알런’과 ‘질’의 정사장면이나, 말 역을 맡은 배우들의 긴장한 육체미라는 대중의 속세적 흥미 때문인가? 그러나 정작 작품은 심오하고 난해하다. 현대인의 영혼 상태와 존재의 근원을 묻는 이 작품의 주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다양한 양식의 종합이라는 측면에서 무척 실험적이기도 하다. 가벼움이 판치는 연극계에 무거운 주제의 이런 작품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해 본다.

〈에쿠우스〉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공연하게 되다 보니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자연스레 나의 대표작이 되어버렸지만, 극단의 정체성과 작업 방향에도 많은 영감을 준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고생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공연을 마려해준 가마골 소극장, 그리고 이윤택 대표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극작가



피터쉐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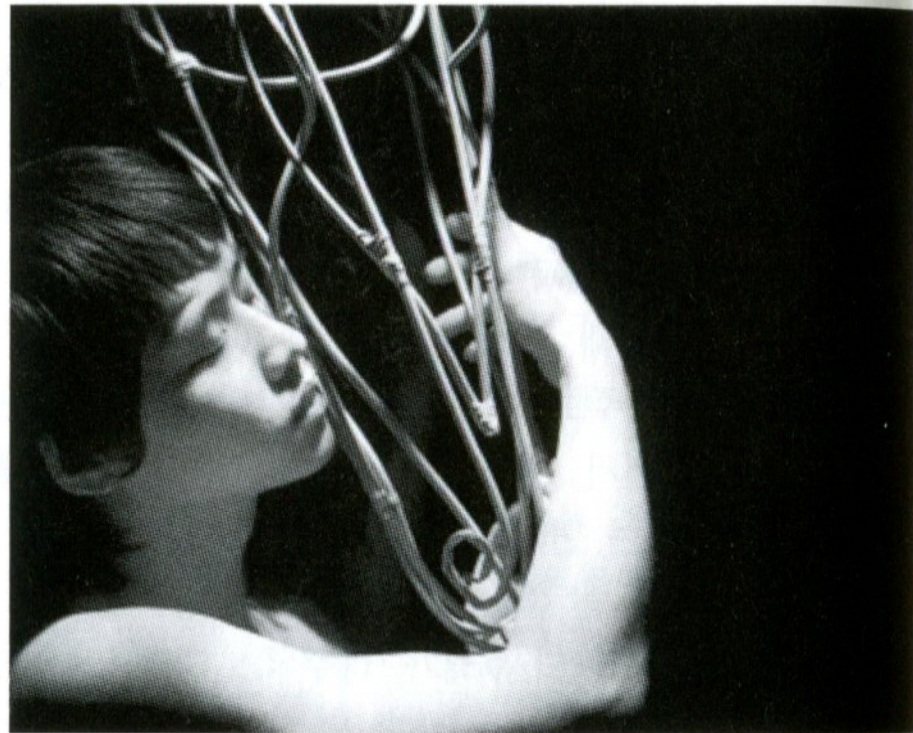
1954년 런던에 있는 '부지 앤 호크스' 악보 출판회사에 근무하던 중 그의 작품 <소금의 땅>이 영국의 한 TV에서 제작되고, 라디오 드라마인 <돌아온 탕부(The Prodigal Father)>가 BBC에서 방송되었다. 이후 두개의 미스터리 소설(쌍둥이 형제 안토니와의 공동집필), TV 스릴러 한 편을 썼고, 주로 문학과 음악에 관한 비평을 런던의 잡지에 실었다.

그후 1964년 <태양제국의 멸망(The Royal Hunt of the Sun)>이 영국 국립극단의 치체스터 페스티벌의 오프닝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국립극단의 정규 레퍼토리로 런던의 올드빅 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1965년 뉴욕에서도 공연되어 관객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작품은 피터 쉐퍼의 작품 중 최초로 영화화 되기도 하였다.

그 뒤에 쓴 <에쿠우스(Equus)>와 <아마데우스(Amadeus)>가 성공적인 공연을 거쳐 쉐퍼에게 토니상을 연속으로 안겨주었고, 두 작품 모두 영화화되었다.

특히 말 스물여섯마리의 눈을 찔러 멀게한 소년 알런 스트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에쿠우스>는 유럽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장기공연된 작품이다. 또한 영화 <아마데우스>는 연극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의 작품으로는 <블랙코미디>, <새하얀 거짓말>, <고해를 위한 전쟁(The Battle of Shrivings)>, <요나답(Yonadab)>, <고곤의 선물> 등이 있으며, 현존 영국 극작가 중 가장 성공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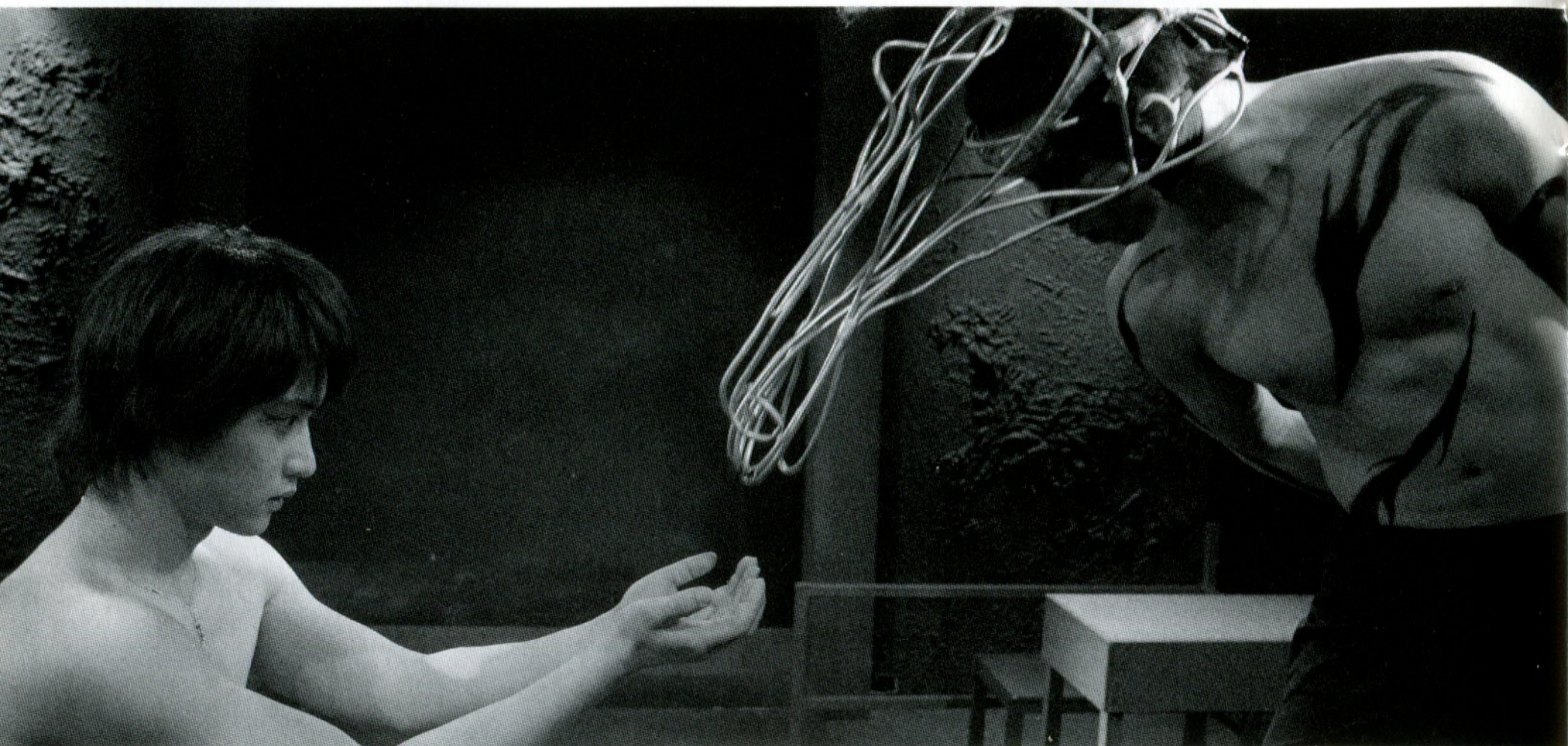


피터 쉐퍼

두해가 더 넘는 지난 어느 주말이었다. 나는 친구와 둘이서 시골길을 자동차로 달리고 있었다. 어느 마구간을 지나갈 때였다. 그 친구는 마굿간을 보자마자 최근 런던의 어느 만찬회에서 들었던 놀라운 범죄사건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처절한 대목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종잡아 1분도 못된다. 그러나 강렬하게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몇 해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극도로 정신이 불안정한 한 소년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은 그 지방의 법정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조리 있는 설명이 결여되어 좀처럼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기도 했다. 수개월 후에 나의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그 때문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확인해볼 수도 없었고 상세히 물어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사람이나 고장의 이름도 그리고 언제 있었던 일인지조차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마 그도 역시 알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다만 내게 있어서는 그 무서운 사건에 대해 그가 알려준 정보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러 일으킨 감정의 소용돌이 뿐이었다. 나는 그 일을 전적으로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불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심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여야만 했다.

「에쿠우스」 속의 인물과 사건은 범죄 그 자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나의 창작이다. 그 범죄자체도 내 생각대로 연극적 균형에 따라서 변형시켰다. 지금에 와서는 실제로 그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을 분명히 듣지 않았던 일을 차라리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 희곡의 최종단계에서 어느 저명한 아동정신과 의사로부터 조언과 전문적인 비평을 듣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이 사건을 보다 자연주의적 감각에 맞게 사실적으로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또 한마디로 정신과 의사라고 하지만 실은 수많은 타입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갖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이샤트는 어떤 시골 병원의 한 의사에 불과하다. 이 의사도 그의 환자인 주인공처럼 나에게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1. 가마골소극장 25주년 기념 공연으로 기획되는 이번 《에쿠우스(EQUUS)》 공연은 1986년 용두산 공원 입구에서 처음 가마골소극장을 설립할 당시 공동대표로 참여하였던 연출가 이성규(부두극장)와 이윤택(연희단 거리패)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하였던 연극적 열정을 추억하고, 거제리에 다시 동지를 튼 가마골 소극장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에쿠우스》의 부산 초연은 1985년 중앙동에 있던 부두소극장에서 2달간 공연되어 약 6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화제작이었지만, 공연이후 부두소극장은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폐관되었으며, 그 사건은 부두극장이 가마골 소극장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가마골소극장 시절에도 《에쿠우스》를 이성규의 연출로 공연할 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작년에도 액터스 소극장에서 공연한 이후 가마골 소극장에서 재 공연할 예정으로 있다가 배우의 사정으로 취소되었었다. 한편 이 《에쿠우스》는 가마골소극장의 김광보에 의해 1993

년도에 중앙동 가마골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이후 연출가 김광보의 고정 레파토리가 되었다. 연출가 김광보는 1985년 부두소극장 초연당시 조명을 담당하였던 부두극장의 단원이었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에쿠우스》의 가마골 소극장 25주년 기념 공연은 그래서 더 뜻있고 특별한 것 같다.

3. 관객들과 연극인들로부터 텍스트에 충실한, 가장 에쿠우스 다운 공연이란 평가를 받은 부두연극단의 《에쿠우스》는 1985년 초연된 이후 1998, 2006, 2009에 이어 5번째 공연되는 연출가 이성규의 대표 레파토리이며 '다이사트' 역을 맡은 배우들의 무명시절 출연작으로 유명하다. 김하균(탈렌트), 김윤석(영화배우) 등이 다이사트 역을 맡은 바 있다.

현대문명 속의 인간은 과거 문명 속의 인간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과연 더 정상적인 것일까? 과거 문명속에 존재했던 신화의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창조와 생명의 힘을 잃어버린 거세되고 박제화된 존재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가진 피터-쉴퍼의 시각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말하는 디오니소스 축제의 사상과 일치한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긍정의 힘은 연극의 원류이며 본원적 정신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20세기는 기존의 가치와 관습, 제도에 일대비판을 가한 시기이며,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찾기위해 신에대한 반항과 도전은 물론, 원시지향의 문화와 예술사조가 범람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있는 연극 《에쿠우스》는 과학과 이성중심의 사고가 낳은 소외와 인간성 부재, 국가, 사회, 문화, 종교의 제도화로 인하여 본성을 억제당하고, 창조적 자유와 의지를 꺾어버린 현대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피터-쉴퍼의 분신으로서의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는 이 극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극의 해설자이면서 싸이코-드라마의 연출자이다. 그는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 충실한 과학적 사고를 가진 정신과 의사 이면서도 사라져버린 신화의 열정과 창조성을 꿈꾸고 있는 모순적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어느날 말 26마리의 눈을 찔른 엽기적인 소년 '알런'을 만나면서 절망에 빠져든다. 알런에게 있어 말은 신이다. 알런의 적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사회와 인간들이다. 오늘의 사회구조속에서 철저히 자연과 본능의 자유를 상실당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한 알런을 치료해가면서 다이사트는 자신이 빠져있는 모호한 좌절감의 실체를 확인해나간다. 연극은 알런의 치료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광적으로 종교에 집착하는 어머니 도라, 무신론자인 아버지 프랭크, 열렬한 휴머니스트 이지만 깊은 인간적 진실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여판사 헤스터, 본능에만 집착하는 마구간 소녀 질을 보여주게 되는데 연극은 이들에 대한 정신 분석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다이사트의 딜레마는 알런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알런의 신성한 제의에 대한 동경과 함께, 제도와 관념의 투망에 갇혀버린 비정상적인 현대인의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두드러진다. 그는 연민과 두



려움으로 알런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알런을 치료하는 것은 숭배와 열정이라는 알런의 개성을 절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야누스적으로 그를 치료하고야 만다. 한편 알런은 세상에 대한 소외와 분노로 스스로 신을 창조하고 열렬히 숭배하였지만, 그의 인간적 본능을 심판하는 신의 실체를 느끼고 난 뒤,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 신의 눈, 즉 말의 눈을 찔러버리고, 마치 외디푸스처럼 자신의 눈도 찔러버리고 만다. 두 사람은 길을 잃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분신이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심오한 질문의 하나는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현대세계가 오히려 원초적 자연성과 활력을 잃어버린 죽은 세계, 즉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신성과 야성을 끄집어 내는 데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극의 매력은 그 배경에 아폴론적 세계와 디오니소스적 세계, 유일신과 다신론적 세계의 대립으로부터, 정상과 이상, 문명과 자연 등 절실한 현대적인 테마가 교향곡적인 박력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특징



○ 무대

무대는 좌우측에 네 개의 기둥을 설치하고 전 출연진들이 기둥 밖에서 극의 진행을 참관함으로써 무대행위가 마치 권투링에서의 혈전, 혹은 재판과정에서의 사건추리 같은 암시적 역할을 한다. 극소표현의 대도구와 소도구, 관객과 극의 심리적 상태를 추적해 일치시키는 조명, 무한한 공간확대를 위해 에너지와 호흡으로 축소 응축된 동작선 및 연기, 효과음화 되어버린 음악의 포괄연출은 알런을 희생물로 바치는 현대적 제의의 무대이기도 하다.

○ 다채로운 연극형식의 충돌과 만남

이 연극은 정신과 의사 다이사트가 정신병자 알런을 치료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형식은 극중극의 구조로 되어있어 일종의 서사극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현대인의 병리현상을 해부해 보여주는 일종의 쇼셜-사이코 드라마 기법이 혼용되어 있다. 또한 알런의 의식이 폭발하는 과정은 제의극적, 잔혹극적 요소까지 포함돼 있어 그야말로 절충주의 연극 형식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 제의(祭儀), 그리고 나신(裸身)

이 연극속에 알런과 질의 마굿간 정사장면은 항상 세간의 화제가 되어 왔으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그것은 장면 처리상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인정돼 허락되었다. 또한 건장한 남자들의 근육과 땀으로 형성된 말의 움직임과 알런의 말 탄 모습은 신성한 제의였으며 화제였다.

○ 환상적인 조명과 음악, 율동

이 연극은 알런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의적인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조명과 음악, 율동 등이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이 연극의 성공은 연극 내용의 충격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미지, 소리, 리듬의 신선함에도 기인한다.

줄거리



1막

시골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다이사트'는 어느날 친구인 가정 법원 판사 '헤스터'로부터 26마리의 말의 눈을 찢은 소년 '알런'의 정신 치료를 의뢰 받는다. '알런'을 만난 순간부터 소년의 매서운 눈초리 때문에 왠지 불안해지고 의기소침해진 다이사트는 소년의 정신병의 근원을 찾기위해 그들의 부모인 '도라'와 '프랭크'를 만나게 되고, 알런이 말을 좋아했으며 어머니가 갖다준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지냈다는 정보를 얻게된다. 또한 마굿간 소녀 질의 소개로 마굿간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다이사트는 알런을 최면술로 유도하여 말과 알런의 특별한 관계와 그들이 벌린 밤 들판에서의 그들만의 제의의 내용을 알게된다.

2막

말과 '알런'의 애무장면을 지켜본 "다이사트"는 소년의 의식을 움직인 '말'의 실체에 대해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병원을 찾아온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알런은 점점 더 다이사트를 의지하게 되고 스스로 치료받길 원하게 된다. 알런은 드디어 말의 눈을 찢은 최종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것은 질과 함께 간 성인 영화관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질의 끈적진 유혹 때문에 마굿간에서 정사를 벌리다 일어난 일이다. 다이사트는 알런의 의식 속에 있는 '말'은 신이며,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알런이 말의 눈을 찢은 것을 알게 된다. 드디어 알런은 치료된다. 그러나 다이사트는 알런을 치료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절망과 회의를 하게 되고 알런의 의식을 움직인 그것의 실체를 찾기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을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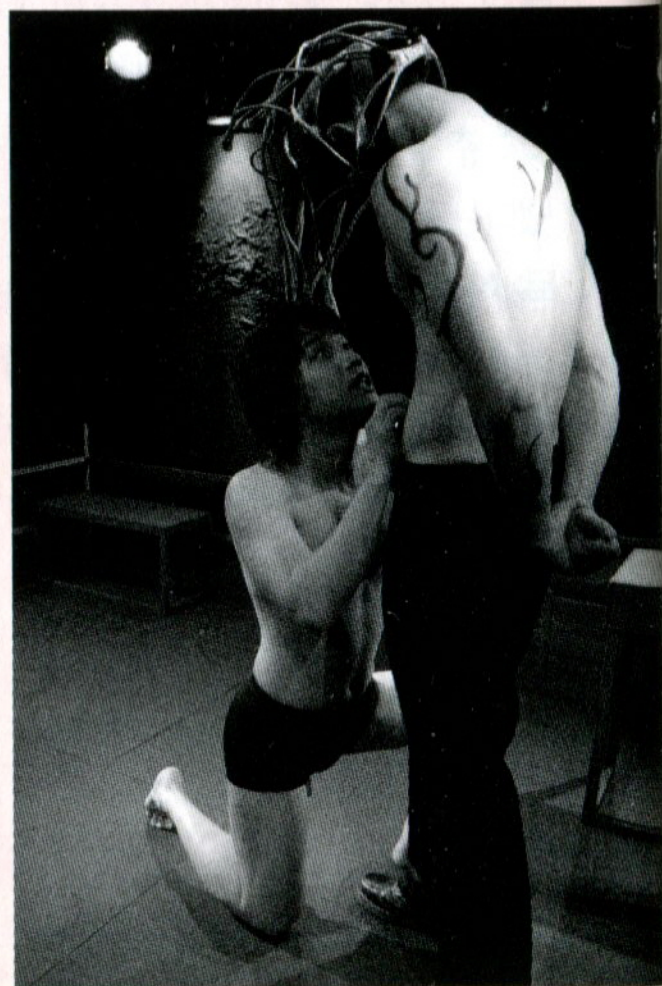
장면개요

제1막

- 1장 치료중 말과 인간의 애무
- 2장 26마리의 말 눈을 찌른 알런의 치료를 헤스터로부터 부탁 받다.
- 3장 알런과의 첫 대면
- 4장 다이사트의 악몽 ~ 불안과 죄의식이 꿈으로 나타남
- 5장 헤스트에 대한 다이사트의 원망, 뛰어드는 알런
- 6장 가정방문
- 7장 알런의 악몽
- 8장 탐색 1
- 9장 탐색 2
- 10장 도라(어머니)의 비밀스런 방문
- 11장 알런의 고백
- 12장 프랭크(아버지)의 비밀스런 방문
- 13장 질에 대한 질문
- 14장 질과 마굿간 - 첫 경험
- 15장 알런의 연습
- 16장 다이사트의 내면과 가정생활의 비밀
- 17장 최면술 ~ 알런-예수-에쿠스의 비밀을 알아낸다
- 18장 마굿간, 뒷길의 제의
- 19장 들판에서 이뤄지는 말과 알런의 제의

제2막

- 1막이 두 주인공 알런과 다이사트의 갈등과 탐색이었다면 2막은 이해와 존중, 만남이 이뤄진다.
- 20장 말과 인간의 애무, 모자간의 격렬한 싸움
- 21장 알런의 슬픔
- 22장 다이사트의 알런의 치료에 대한 희망과 적극적 이해와 지지.
- 23장 알런의 편지
- 24장 고독한 두사람의 만남
- 25장 질의 유혹
- 26장 영화관, 거리
- 27장 거리의 우울 - 아버지의 겁먹은 얼굴
- 28장 질과의 마굿간 정사, 실패
- 29장 에쿠우스의 저주.
- 30장 다이사트의 절망, 그리고 새로운 응시.



공연평

영문학도들과 함께 한
부두연극단의 에쿠우스

송원문(신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조차도 〈에쿠우스〉가 자동차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수용되는 현실에서, 실제로 피터 셰퍼(Peter Shaffer)의 그 〈Equus〉를 공연으로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는것은 막막한 영문학 강의에 한줄기 바람 같은 경험이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교수 몇몇이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거나 했을까 마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본질적인 것이 주는 무거움을



부담스러워 하며 참으로 가볍고 발랄한 입맛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영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비록 가벼운 문화코드에 익숙해져 있다손 치더라도 세월을 거쳐 증명된 작품성의 깊은 맛은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학생들이 그 깊은 맛을 맛보게 하는 것이 어려울 뿐, 일단 맛보고 나면 우리 학생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깊이와 감동을 느낄 것이라 믿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는 빛이 바래가는 불편한 교수의 권위와 인간적인 호소를 적절히 섞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남천동 액터스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부두 연극단의 〈에쿠우스〉를 보러 갔다.

1973년 런던에서 초연되었고, 우리나라에선 1975년

실험극단에 의해 처음 공연된 〈에쿠우스〉는 사실 여러 면에서 소위 7080세대의 문화적 코드에 일치하는 점을 많이 가진다. 2차세계대전과 월남전 이후 1960-70년대에 휘몰아쳤던 기성세대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친 저항과 정신적 방황은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형성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흐름과 함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현실과 군사정권의 각 잡힌 문화적 정형화사업은 최인호의 〈고래사냥〉에서와 같이 몽상적 도피, 혹은 피터셰퍼의 〈에쿠우스〉에서처럼 원시적 자유와 욕망을 향한 관념적 일탈 중 하나를 당시의 70/80들은 흔히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문명과 자연, 정상성과 비정상성, 신화와 현실, 욕망과 이성이 담배연기처럼 나른하게 뒤섞여 있는 이 〈에쿠우스〉라는 작품을 사랑했고 내 이야기처럼 공감했었다.

수많은 방송 채널과 TV리모콘이 만든 새로운 문화는 '진짜로 원하는 것'을 직접화법으로 3초 안에 말하던지 감각에 호소하는 화면으로 시청자를 단번에 중독시키지 않으면 가차 없이 채널을 바꾸어 버리게 한다. 마음을 휴대폰 액정화면 내에서 표현하기에 익숙한 이 젊은 세대에게 과연 〈에쿠우스〉를 어떻게 강의하고 토론할 것인가 하는 나의 고민은 〈대략난감〉이란 그들의 4자성어로 표현된다. 그래서 노련한 이성규씨가 연출하고 부두연극단이 공연한 〈에쿠우스〉는 [대략난감]한 상태에 있는 이 영문과 교수에게는 어려운 전쟁터에서 구원군을 만난 심정이었다. 말보다는 시각적인 것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난감한 교수의 언어가 주지 못하는 것을 연극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에쿠우스〉는 잘못 연출하면 소위 '오바' 하거

나 감정적 설사 상태에서 시끄러운 연극이 될 수 있는데, 연출가가 이성규 씨라는 사실이 일단 이러한 염려는 하지 않게 했다. 사실 이성규 씨는 문화변방 부산의 연극을 지키는 노획한 수문장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미 〈에쿠우스〉를 수차례 연출한 경험이 있어서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도 기대를 안고 학생들을 이끌고 소극장으로 갔다. 문화적 취향이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후천적 입맛이기 때문에, 소극장을 처음 경험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번 경험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이성규 씨가 연출한 〈에쿠우스〉는 소극장의 독특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오랜 손길이 느껴지는 절제된 진지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배우, 연출자,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이성규 씨는 〈에쿠우스〉의 풍부한 연극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 이 연극성이라는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연극을 볼거리 위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실제 〈에쿠우스〉를 그렇게 연출하는 것을 본적도 있다.)

이성규 씨의 〈에쿠우스〉는



연극성과 극적 메시지 사이에 그 중용을 유지하는 원숙함을 보여주었다.

〈에쿠우스〉는 그 독특한 무대로 유명하다. 공연은 사각의 링처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세트를 배우들이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진행된다. 사각의 링과 같은 세트는 병원이 되고, 마구간이 되고, 극장이 되기도 한다. 무대세트의 미니멀리즘과 언어가 만들어 내는 장면의 변화는 대단히 셰익스피어적이기도 하다. 사각의 링

과 같은 무대 세트는 그 의미가 상당히 풍부하다. 그 안에서는 모든가치들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마치 긴장의 날을 세운 두 권투선수처럼. '다이사트'는 정상의 잣대로 분석하려고, '알런'은 저항하며 비웃는다. 이들의 의대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대한 경멸적 대립에서 이해와 동경의 대상으로 서로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이사트'는 '알런'을 치료하면서 결국 자신을 치료하고 있으며, 알런 역시 치료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으로 역할이 전도되기도 한다.

사실 이성규 씨가 연출한 〈에쿠우스〉무대는 이중 삼중으로 관찰이 일어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다. 사각의 링 세트 밖에서 배우들은 관객에게 노출된 채로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며, 때론 단순한 대기 상태가 아니



라 대사를 주고받는 연기상태가 됨으로써 무대는 보는 관객의 시점은 더욱 입체적이 된다. 관객은 무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우의 시점이 되기도 하고, 무대 밖의 배우와 무대 위의 배우를 모두 관찰하기도 하고, 또 때론 무대 위의 배우에게 대사가 주어지지 않은 상대 배우로 취급되기도 한다.

사각의 링처럼 만들어진 무대를 회전시킴으로 말들이 뛰는 역동성과 거리감 그리고 소극장이 가진 공간적 한계를 단번에 극복해 버리는 연출은 무대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내뿜게 했다. 그 회전하는 사각의 무대 중간에 말을 타고 광기와 환희에 휩싸인 채 소리치는 알런의 모습은 연극 무대만이 줄 수 있는 감동과 즐거움이었으며, 과거에 내가 그랬듯 우리 학생들에게 이 장면은 오랫동안 잊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극을 관람 후 교실에서 대하는 〈에쿠우스〉는 아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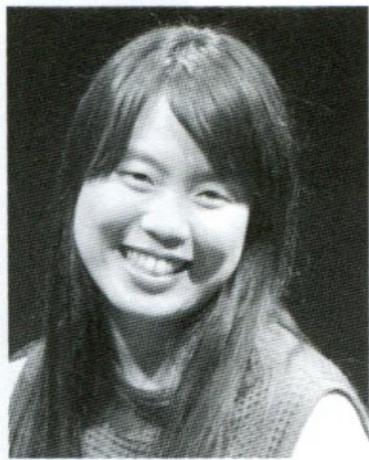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각별한 작품으로 다가 올 것이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연출가 이성규 씨와 부두연극단의 활동은 마냥 고마운 것이다. 특히 빠르고 가벼운 것이 문화전반의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직하게 주옥 같은 영문학 작품들을 계속 공연해 오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제 영문학 강의를 가볍게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을 다시 고쳐잡게 만든다. 이번 〈에쿠우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이라면 다음 번 공연에 연극 보러가자고 하면 흔쾌히 따라나설 것이다. 연극은 그런 것이다. 꺾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다. 액터스소극장이 터져나갈 정도로 통로에까지 빼곡이 자리 잡은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의 에너지를 맛보게 해 준 배우 및 극단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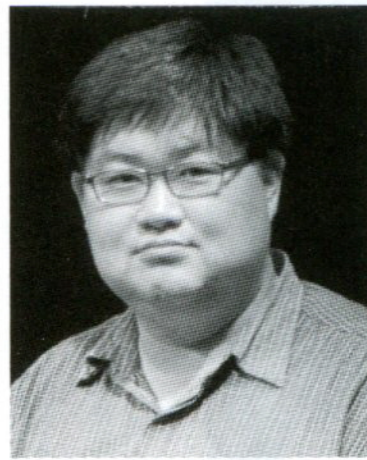
스텝 소개



무대감독 / 김태호



안무 / 양효윤



음악 / 강원중



공연기획 / 권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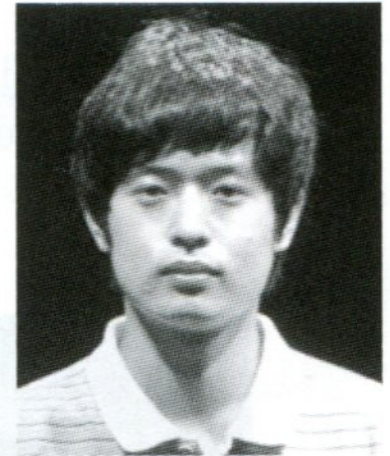
의상/소품 / 신은진



의상/소품 / 박미경



조명OP / 양은미



음향OP / 홍연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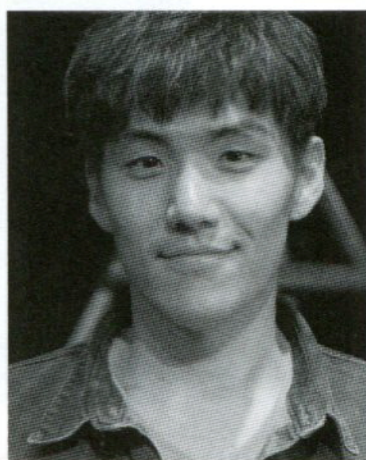
조명디자인 / 최동일

Special Thanks / 최성우, 강태우, 박진경, 김윤정

가마골 공연기획팀 소개



공연기획 / 이종환



공연 홍보 / 안준영



공연 진행 / 강국희